

2026. 4. 22.(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4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02-2133-0400
도시콘텐츠기획팀장	권미리	02-2133-0417
누리집	www.runbase.co.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지하철역의 변신, '러너지원공간' 러닝 프로그램 6개월간 1,147명 참여

- 작년 광화문역 시작으로 회현·월드컵경기장역 '러너지원공간', 무료 러닝 프로그램 운영
- 도심 모닝 러닝, 남산순환길 러닝, 가족 단위·장거리 러닝 등 역별 특화 프로그램 마련
- 수준별 러닝부터 보강운동, 자세 교정, 리커버리까지 실질적인 생활체육 지원 기능 중
- 시 "신규 대상지 지속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스테이션' 확대해 나갈 것"

□ 서울시 편스테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화문역(5호선)·회현역(4호선), 월드컵경기장역(6호선), 3곳에서 '러너지원공간'을 운영한 지 6개월에 접어드는 가운데 출퇴근길 가볍게 러닝을 배우거나 도심·공원 등을 함께 달리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 서울시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러너지원공간'에서 러닝 입문부터 마라톤 완주를 위한 심화 과정까지 무료 러닝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닝을 배우고 싶은 시민은 러너지원공간 누리집(runbase.co.kr)에서 원하는 과정과 요일을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시가 지난해 10월~올해 3월까지 광화문역, 회현역, 월드컵경기장역 3곳에서 러닝 프로그램 95회를 운영한 결과, 총 1,147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회당 최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회 매진을 기록,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여가 활동을 뒷받침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 러너지원공간은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 빈 공간을 편리한 생활체육 거점으로 전환한 사례로, 출근 전·퇴근 후 짧은 시간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입문형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습관 형성을 돕고 있다.

○ 탈의실, 보관함, 파우더룸 등 러닝 전후에 필요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지하철역 주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는 ▲도심 오피스 밀집지역에 위치한 광화문역 ▲남산 순환길 초입의 회현역 ▲가족 단위 러너들이 즐겨 찾는 월드컵경기장역 등 각역사 주변 입지와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 공간별 개성은 살리면서도 폭넓은 러닝 경험을 제공 중이다.

○ 광화문역은 청계천, 경복궁 주변을 활용한 ‘도심형 코스’를 바탕으로 직장인을 위한 ‘모닝 러닝’을 운영, 출근 전 아침 러닝 문화를 확산했다.

○ 남산 순환길 코스를 활용한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회현역은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외국인도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 런도 병행해 개방적이고 다채로운 러닝 문화를 형성했다.

- 월드컵경기장역은 패밀리 러닝, 장거리 러닝 등을 운영하며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서북권 러닝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 시는 러너지원공간이 제공 중인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러닝부터 보강 운동, 자세 교정, 리커버리 요소까지 함께 운영해 실질적인 생활체육 지원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또 각 역사는 인근 카페, 요가원, 주민센터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러닝 후 모닝커피, 회복 스트레칭, 건강 교실 등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순 달리기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생활권 밀착형 러닝 문화도 형성하고 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도 편리한 이용 동선, 전문 코치 지도, 함께 뛰는 분위기가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며 건강한 운동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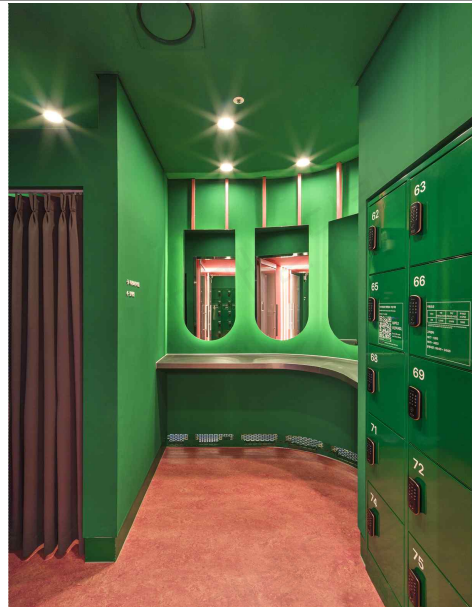
- 참여자들은 ‘지하철역 안에 있어서 출근하는 길에 잠깐 들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문 코치 지도 아래 자세, 장비 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러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다’, ‘함께 뛰는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 특히 지난 6개월간 초보 러너의 참여가 활발했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러너지원공간은 건강한 일상과 관계를 연결해 주는 생활체육 거점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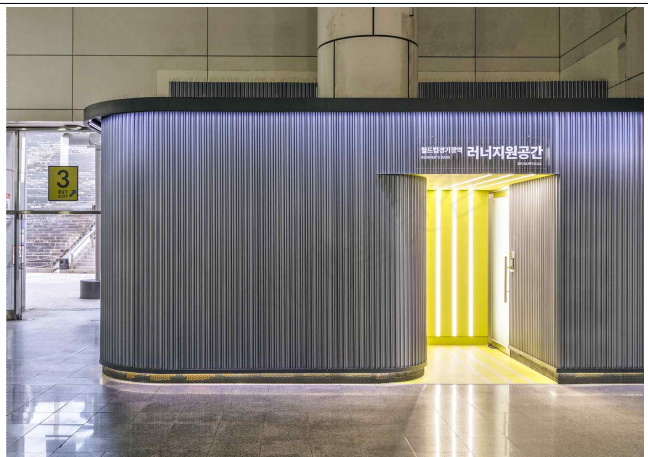
□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러너지원공간 덕분에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이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도시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공공 플랫폼으로 탈바꿈했다”며 “앞으로도 신규 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스테이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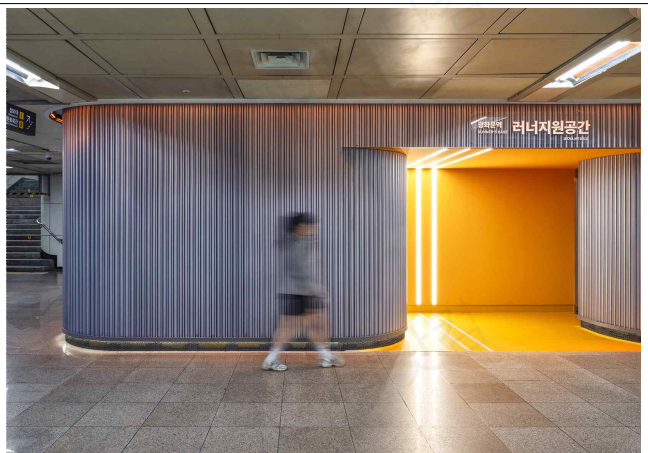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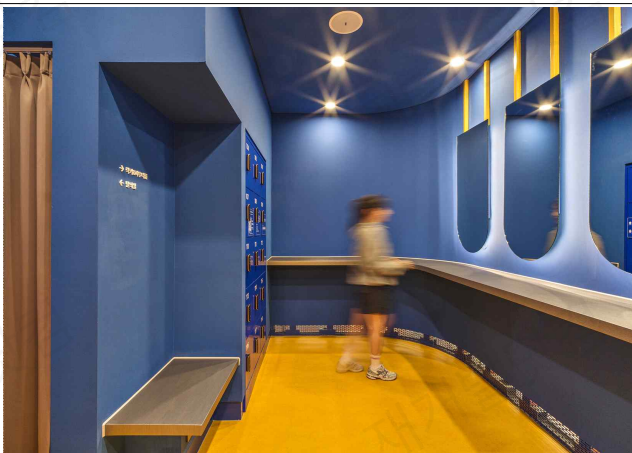
관련 이미지



회현역



월드컵경기장역



광화문역